

北美만의 종전선언 의미없어... UN 등 조율 필요

한반도 종전선언 왜 빠졌나

남북미중 등과 함께 추진 가능성 트럼프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

12일 얼굴을 맞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형식상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순차적으로 비핵화 절차를 밟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은 이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카펠라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종전선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이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 행 티켓'을 기다렸었다.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그곳에서 남한

<북미 정상회담까지 주요 일지>



까지 참여한 3국의 종전선언은 당초 우리 정부가 내심 구상했던 그림이었다. 분단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남북미

정상인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국제 사회에 전하는 '평화 메시지'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회담 관련 문재인 입장문

"한반도 평화 위해 혼신의 힘 다하겠다"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낯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6월 12일 센토사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

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 준 리선룡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

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6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F1 피트 빌딩에 설치된 인터내셔널미디어빌딩(IMC)에서 각국 취재진이 TV 모니터에 중계된 북미 정상 모습에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진 2500명 '역사적 순간' 생중계

세계의 시선 쏠린 싱가포르

'세기의 만남'이 성사된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렸다. 도널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상 첫 만남이 이뤄진 12일 10시(한국 시간)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주변에는 취재진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이에 앞서 양 정상은 묵고 있는 본섬의 상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리시스 호텔 인근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태운 자동차 행렬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날 오전 8시 13분과 30분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카펠라 호텔에 당도했을 때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여러나라 매체들이 역사적 순간을 생중계하며 취재열기를 자아냈다. 이번 회담을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 등 관계자들은 2500여명으로 전해진다. 카펠라호텔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인공기와 성조기가 6개씩 연달아 총 12개가 게양됐다. 이 배치는 '6월 12일'을 상징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철통같은 경비로 싱가포르 거리는 다소 삼엄해졌지만, 현지인들은 평소처럼 일하며 생활하면서도 이번 회담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로 작용하기를 바랐다. 전날인 11일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옴에궁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겸 국방부 선임장관과 함께 마리나베

이센즈 지역을 둘러 산책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것이라 전망과 기대도 높아졌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은퇴자인 우(71)씨는 "싱가포르가 현재 집중적으로 전세계 미디어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회담을 싱가포르가 치를 수 있게 돼 참 대단하고 멋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관광객으로 온 호주인인 데니스씨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될 듯하다. 북한과 미국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그레야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BBC는 싱가포르의 택시기사들과 인터뷰한 동영상 소개하며, 현지인들이 이번 회담에 갖는 생각들을 보도했다. 택시기사들은 "전쟁 대신 평화를 의제로 삼아 매우 기쁘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것 같다. 싱가포르에게도 행운이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 경제가 나아질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 북한에서 사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 "한국인들에게 좋은 일이 돼서 기쁘다" 등 이번 회담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도 며칠 전부터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회담 당일 탄중파가(Tanjong Pagar)에 위치한 한인회관으로 모여 양 정상의 만남을 TV로 시청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대등했던 북미

북한과 미국은 대등했다.

12일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도착했다. 카펠라 호텔내 회담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자리를 잡았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악수를 나누는 카펠라 호텔 입구에는 인공기와 성조기가 각각 6개씩 번갈아가면서 배치됐다.

이날 단독회담 등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회담장에 들어간 취재진도 북한 7명, 미국 7명으로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현지 시간)계 숙소인 상그릴라 호텔을 나서 전용차량인 캐딜락을 이용해 카펠라 호텔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0여분 늦게 숙소인 세인트리시스 호텔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숙소

는 거리론 약 500m였다.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나와 손을 흔드는 등 배웅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호텔 출발시간이 다소 빨랐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보다 카펠라 호텔에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호텔내 회담 장소엔 김 위원장이 먼저 나타났다. 전용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통이 넓은 검은색 바지와 줄무늬가 없는 검은색 인민복 차림에 왼손엔 서류철과 오른손엔 안경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양 정상이 처음 만나기로 한 시간인 9시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호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왔지만, 회담장에는 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해 기다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한 붉은색 넥타이와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 차림이었다. 역



12일 오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차량(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이 싱가포르 세인트 리시스 호텔에 나서 카펠라 호텔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 표정은 없었다. 두 정상의 첫 악수는 예정시간인 9시를 조금 넘겼다.

악수를 나누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뒤로는 성조기, 인공기, 성조기, 인공기 등 각각 6개씩의 국기를 번갈아 배치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승호 기자